

“AI 시대, 정의란 무엇인가?”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AI 청소 로봇이 집안을 누비며 쓸고 닦고 있으며 AI 스피커는 나름대로 개인 비서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의료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도 이미 도입되어 활약 중입니다.

AI는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는 21세기 최고의 자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전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AI는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패턴을 파악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생산한 데이터 자체가 편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I도 결국 편견을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국내 챗봇 ‘이루다’나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 챗봇 ‘테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간을 위해 발명된 AI가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AI 자율 주행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센서 오류나 판단 지연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다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할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차량 소유자, 탑승자, 차량 제조사, 자율주행 시스템개발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같은 윤리 도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생활 감시에 대한 부작용은 이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가 혹은 권력은 ‘안전함’을 명분으로, 민간 기업들은 ‘편리함’을 명분으로 디지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증으로 정치성향까지 가려내는 정부도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도 상상을 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과 이란을 전쟁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AI드론에 의한 이란 혁명수비대원 살해는 마치 핀셋처럼 정확하게 목표물을 제거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확산은 이밖에도 자동화에 따른 고용감소 및 실업의 증가, 빈부 격차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상 기술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사회변화를 초래할 때마다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때마다 지혜를 발휘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AI는 윤리원칙을 학습하기만 하면 사람보다 더 철저히 그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어떠한 윤리원칙을 학습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알고리즘과 학습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AI에 관한 윤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왔습니다.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나 OECD도 AI 윤리 권고안을 마련했고, 민간기업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인 AI 윤리 원칙을 마련해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간에게 안전한 지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학봉상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실증적 객관적으로 현상과 근원을 파악 분석하는 글을 찾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성찰하는 글을 기다립니다. 학봉상이 우리 사회가 한결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한 지혜를 모으는 터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